

## 시설요양원 “백양원”의 수난

—결핵과 싸워 이긴 그도 무지와 폭력 앞에는 무릎을 꿇었다—

김 대 규 / 본 협회 부회장

국립마산요양소에서 가망이 없다고 입원을 거절당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동생마저 결핵으로 잃은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시설요양원 설립에 전재산과 몸을 던졌다. 그러나 무지한 주민들의 폭력 앞에 준공 직전 그의 신념과 선의는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 아내와 동생마저 결핵으로 잃고

경남 구포읍(龜浦邑)에 거주하던 백남포(白南浦)씨는 폐결핵으로 고생하는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자 1957년 10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만덕리(東來郡 龜浦邑 萬德里) 중턱에 있는 야산 1만 7천평을 매입하고 당국의 설립 허가를 받아 그 곳에 병동, 의무동 등 건평 117평에 입원실 10개, 수용인원 20명 규모의 시설 결핵요양원을 부지대금을 포함한 총공사비 천만환을 들여 짓기 시작하였다.

백남포씨는 김해(金海)읍사무소 서기로 일하던 22세때 결핵이 발병하여 국립마산요양소에서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불굴의 투지로 투병생활을 하던중 사랑하는 아내와 동생마저 결핵으로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그 슬픔과 한을 딛고 그때 새로 나온 한 병에 소 한마리값의 스트렙토마이신 열 병의 효력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그는 37세가 되던 그해 사재와 여생을 결핵환자를 위해 바칠 것을 결심, 갖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초유의 개인사설요양원 백양원(白羊園)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투병기 “봄은 다시 온다”를 출판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또한 결핵협회에서는 결핵사업에 대한 그의 투철한 사명감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여 1957년 이례적으로 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3년여에 걸친 처절한 6·25동란으로 막심한 파괴와 인명피해,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영양실조와 궁핍은 필연적으로 결핵의 만연을 초래했으며 빈약한 국가재정은 전후복구에 허덕이며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늘어나는 결핵

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출 형편이 못되었다.

국립마산요양소에는 항상 수백명의 입원 대기환자가 밀려있는 상태였으므로 결핵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초미의 급선무였다.

이런 상황에서 백양포씨는 사재를 바쳐 사설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결핵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의 가욕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정부 당국은 물론 결핵협회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 사설 요양원의 가능성을 여는 쾌거이기도 했다.

### 주민들의 반대난동

그런데 1957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곱차례나 부락 주민들이 90%정도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몰려와 파괴했던 우물을 돌로 메우고, 축단을 파괴하고, 공사도구를 탈취하고, 돌팔매질을 하여

공사중인 인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력적으로 요양원 설립 저지에 나섰다.

이렇게 주민 난동이 발생한 원인은 그 해 10월 30일자로 중리(中里)의 김갑식(金甲植)씨가 주동이 되어 주민 212명 연명으로, 백양원이 설치되면 ① 결핵환자들이 버리는 오물로 인하여 부락민에 전염될 우려가 크다. ② 자연수를 마시고 있는 이 부락 주민은 상류지대인 요양소에서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없다. ③ 요양소 건립이 일개 개인의 영리사업이다. ④ 그리고 당국에서는 이 개인과 암암리의 흑막이라도 있는 듯이 개인편을 든다는 조건을 들어 반대 진정서를 보건사회부장관, 경남도지사, 동래군수, 동래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였으나 보건당국과, 경찰에서는 여러차례 현지답사와 조사를 마친후 동래군수 명의로 ① 요양소로부터 인근부락인 중리(中里)와는



結核療養院임상다고 部落民이 殺到

### 龜浦에集團騷擾



▲ 결핵요양원 백양원 반대집단지요를 보도한 1957년 12월 30일자 부산일보 (사진 왼쪽)와 1960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신문기사.

800m, 하리(下里)와는 1km나 되는 거리가 있으므로 부락민에 대한 전염(공기전염)의 우려가 없고, 상류에서 따로 사용수(使用水)를 끌어 오고 그 사용된 물은 요양원 경지내에서 저수하거나 처리할 것이며 ② 중리(中里)와 하리(下里)를 연결하는 도로는 변경할 것이고 ③ 도리어 구포읍 전체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니 부락민은 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진정인과 구포읍장, 백양원 백남포씨에게 회답한 것이 발단이었다.

즉 이것을 당국자와 요양원 설립자 사이에 무슨 흑막이 있어 자신들의 주장이 묵살된 것으로 오해한 무지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폭력으로 백양원을 파괴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백남포씨는 보건세계 1958년 9월호에 "그를 끄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세상사람들은 지금도 나를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양원 반대 부락민들은 허무맹랑한 중상까지도 하고 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사회의 저명한 일부 인사들까지 결핵과 요양원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그들의 반대를 옳은 것으로 편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망동에 대하여는 무지의 소치로 체념도 하거나 그 수치스런 망동을 민의(民意)니 여론이니 선거와 관계되니 하면서 과단성있는 행정조치까지도 망설이는 우리의 비건설적인 관료주의를 슬피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주민의 반대소요로 거의 준공단계의 공사를 중단하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1959년 3월 어떤 젊은 친구의 소개로 부산 서독병원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기회에 요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의 일부를 기증받아 어느 정도 시설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백남포씨는 부락 최고지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요양원 건립의 시도를 꾀했으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부락민들의 소요가 다시 발생, 지방도로에 가설된 가교를 끊어버리고 요양원 입구에 초소까지 세워 출입자를 감시하였다.

#### 강요된 요양원 포기각서

계속되는 부락민들의 소요와 거센 반대로 마침내 1959년 4월 백남포씨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부락 대표들과 읍장, 지서주임이 정식 입회한 가운데 ① 요양소를 포기한다. 가축장 혹은 다른 사업에 전용하되 종업원의 명목으로 다소를 막론 결핵환자를 고용 못한다. ② 당국의 인가 유무를 막론하고 결핵환자를 수용할 때는 무조건 건물전부를 파괴해도 좋다. ③ 건물 또는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 혹은 양도할 때는 농민대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서는 동민대표와 동행으로 지방행정관청의 확인을 받는다. ⑤ 각서의 취지를 서울신문과 국제신보에 즉시 공고한다. ⑥ 본 각서는 영구적(永久的)이다. ⑦ 4항 5항을 이행한 연후라야 나머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 1957년말 일꾼차레나 주민들이 준공직전의 백양원 공사장에 몰려와 우물과 축단을 파괴하고 인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1958년 1월 15일 위로와 신태파악차 백양원을 방문한 李玩永 국립신생결핵요양소장(좌), 白南浦씨(집바치림), 필자, 李燦世 부산대의대교수 겸 결핵이사(당시).

요양원 포기각서에 조인하게 되었다.

각서를 쓴 다음에야 나머지 공사에 착수, 요양원은 후에 형편이 되면 다른 곳에 다시 짓기로 하고 이곳을 회복자의 사회복귀 적응을 위한 백양원 만덕리 요후보호소(萬德里療後保護所)로 만들고 구포읍내에 결핵진료소를, 부산시내에는 엑스선과를 두기로 하였다.

1959년 5월 국회의 정준(鄭濬)의원, 조일재(趙一載)의원, 경남지사 대리와 결핵협회 임직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요후보호소의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부락민들은 요후보호소 역시 요양원이나 마찬가지로 판단, 또다시 소동을 일으켜 낙성식은 수락장이 되었다.

또한 1960년 9월 23일에는 반대주동자

인 김갑식(金甲植)씨가 요양원 앞을 지나가면서 백남포씨의 욕설을 했는데 마침 동래고등학교에 다니던 백남포씨의 장남 백철기(白哲基, 18세)군이 듣고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자 김씨가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선동, 인근 부락주민 50여명이 집단 습격하여 건물을 완전 파괴하고 철기군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급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습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무지와 폭력으로 결핵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마쳐 기록하려고 발버둥치던 한 독지가의 신념과 선의는 이렇게 역부족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

바로 잡습니다. 5월호 본문기사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중앙공보관」으로 바로 잡습니다.